

116세 최고령 할머니 “투표할 수 있어 기뻐요”

광주·전남 총선 투표 이모저모

19세 새내기 “첫 투표 신중한 선택”
쉬지 못한 직장인들 출근길 한표
나주선관위 오지 수송버스 동원



광주지역 최고령 유권자 박명순 할머니가 15일 오전 광주시 북구 문흥1동 주민센터에서 투표를 마친 뒤 가족들의 부축을 받아 투표소를 나오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

선택의 날인 15일, 광주·전남 투표소 1233곳에는 대한민국을 바꿀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려는 주민들의 발걸음이 새벽부터 이어졌다.

◇손 맞잡고 투표소 찾은 노(老)부부-김복남(80) 할아버지와 정순임(75) 할머니는 이날 오전 7시께 광주시 동구 지원1동 투표소를 찾아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다. 무려 5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는 “우리 동네 사람을 뽑아야지, 그래야 우리 동네가 발전할 것 아니야”, “우리(동네) 사람보다 공평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을 뽑아야지”라고 했다.

출산을 2개월 가량 남겨뒀다는 임영중·양희정씨 부부도 서구 치평동 제3 투표소를 찾았다. “아이 키우기 좋은, 아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 줄 후보를 선택했다”고 했다.

◇생애 첫 투표, 함께하자 친구야-고교 동창 조연서(여·20)와 박민서(여·20)씨는 오전 8시 북구 양산동 주민센터를 찾아 생애 첫 투표를 한 뒤 투표소 입구를 배경으로 인증샷을 찍었다.

조씨는 여성 안전을 위한 공약을 내세운 후보를, 박씨는 지역민들을 위한 현실성 있는 공약을 내세운 후보를 선택했다.

이들은 “투표를 처음 해 기분이 이상했다”면서 “비례정당투표 용지가 길다고 했는데 막상 눈 앞에서 보니 어디를 찍어야 할지 난감했다”고 말했다.

중학교 동창인 김홍수, 황수환, 이호영(19)군도 이날 모교인 금호중 투표소를 찾아 첫 투표권을 행사했다. 김씨는 “친구들과 연락해 함께 투표하기로 했다”며 “첫 투표라 신중하게 후보자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재수생이라는 김모(18)양도 오전 7시, 유촌초에서 생애 첫 투표를 마치고 학원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남들 쉬는 선거날, 출·퇴근길에 투표한 직장인들-직장인 박준영(29)씨는 공휴일이지만 출근을 앞두고 서둘러 지원 1동 투표소를 찾았다. 박씨는 “동구를 위해서 일할 사람,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젊은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정책을 펴는 사람에게 투표했다”고 말했다.

간혹사 김주선(25)씨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길 투표소에 들었다. 김씨는 밤샘 근무라 피곤한 기색에도 “가진 게 투표권인데 유일한 힘을 행사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며 “소신을 가지고 지역민을 위해 봉사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고령 투표자도 한 표-광주지역 최고령자 유권자인 박명순(116) 할머니도 이날 오전 9시 30분께 북구 문흥1동 주민센터 투표소를 찾았다. 박 할머니는 큰 며느리 박양심(65)씨 도움을 받아 투표소에 도착해 한 표를 행사했다.

박 할머니는 “투표를 하니 기분이 좋다”고 말하며 1903년임을 증명하는 주민등록증을 내보이며 환하게 웃음을 지었다.

◇선관위, 노인들 태워 투표장으로-나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8시 투표 편의 지원 차량을 동원, 시골 마을을 돌며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실어 날렸다.

선관위는 교통편이 불편한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오전·오후 하루 2차례 투표장까지 수송 차량을 운영했다.

시골 마을의 경우 대중 교통편인 버스가 운행되지만 시간대를 맞추기 쉽지 않고 귀가하려면 다시 다른 면 소재지까지 갔다가 다른 버스를 또다시 갈아타야 하는 등 투표소 가는 길이 험난한 점을 고려한 조치다.

선관위 수송 버스에 올라탄 노인 유권자들은 “과거 선거에는 비포장 길을 경운기에 올라타 투표하러 다녔는데, 투표 지원 버스로 생기고 세상 좋아졌다”며 선거에 얽힌 이야기거리를 하나씩 풀어냈다.

노인이 대부분인 유권자들은 코로나19 탓에 오랜만에 ‘읍내’에 나간다고 오랜만에 만난 이웃 마을 이장과 주먹을 맞부딪히는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선관위가 마을 10여 곳을 돌아 유권자들을 태우고 투표소에 도착하자 유권자들은 신분증을 가져왔는지, 다시 한번 쟁긴 뒤 느릿한 걸음으로 투표소에 들어가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다.

나주시 서영순(71) 할머니는 “투표하러 가려고 아껴둔 마스크를 꺼내 썼다”며 “시골에서는 자녀들이 돌지 않으면 노인들이 투표하는 게 쉽지 않은데, 고생스럽더라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 않겠나”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나주·손영철 기자 ycsn@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59 | 해질녘 19:06 | 달뜨기 02:34 | 달지기 12:46

한낮기온 포근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 영향으로 대체로 구름많겠다.

광주	구름많음	7/23	보성	구름많음	3/17
목포	구름많음	6/19	순천	구름많음	7/20
여수	구름많음	10/17	영광	구름많음	3/22
나주	구름많음	1/22	진도	구름많음	4/18
완도	구름많음	7/18	전주	구름많음	5/25
구례	구름많음	3/23	군산	구름많음	5/22
강진	구름많음	3/18	남원	구름많음	3/23
해남	구름많음	1/19	축산도	구름많음	8/18
장성	구름많음	2/23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 (m)	풍향	파고 (m)
서해남부	남동~남	0.5	남동~남	0.5~1.0
면바다(북)	남동~남	0.5~1.0	남동~남	1.0~2.5
면바다(남)	남동~남	0.5~1.0	남동~남	1.0~2.5
남해서부	동~남동	0.5	동~남동	0.5~1.0
면바다(서)	남동~남	1.0~1.5	남동~남	1.5~2.5
면바다(동)	동~남동	0.5~1.0	동~남동	1.0~2.0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1:14	08:59
15:09	21:09	

여수	간조	만조
	11:19	04:37
22:43	16:50	

◇주간 날씨

17(금)	18(토)	19(일)	20(월)	21(화)	22(수)	23(목)
☁	☁	☁	☁	☁	☁	☁
11/17	9/19	11/16	9/18	9/16	6/16	6/17

◇생활지수

보통	보통	보통
감기	보통	보통
뇌졸중	보통	보통
미세먼지	보통	보통

광주 동구 예술의 거리 등 10곳 도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광주 동구가 도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에 나선다. 동구는 “노후 교통시설물 점검과 퇴색된 노면표시를 정비, 교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로 교통안전시설물 공사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공사는 3400만원을 투입해 예술의 거리·전남여고·장원초교 주변 도로 등 10곳을 대상으로 다음달까지 진행된다.

대상지역은 재도색 요청 민원이 많은 곳을 우선적으로 정해졌다. 백색·황색차선·횡단보도·문자 및 기호 재도색 등의 방법으로 추진된다.

또 보행환경개선을 위해 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지역에 대한 횡단보도 설치공사도 진행한다.

횡단 보도는 조대여고·산수성당 앞 등 6개 지역 8곳이 신규 설치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투표날 오후 한가로운 캠퍼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5일 오후 투표를 마친 유권자들이 전남대학교 운동장 잔디밭에서 삼삼오오 모여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최혜미 기자 choi@kwangju.co.kr

광주 북구, 소 사육농가 구제역 예방접종

광주시 북구는 오는 25일까지 구제역 예방과 농가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2020년 상반기 구제역 일제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접종은 농가의 구제역 예방접종 누락 개체를 방지하고 일제접종을 통한 항체 형성을 높여 농장 내 유입될 수 있는 구제역 바이러스 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한다.

접종은 전업농가(소 50마리 이상) 4가구 371마리와 소규모농가(50마리 미만) 35가구 698마리 등 한우사육 농가 39가구 1069마리가 대상이다.

북구는 수의사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예방접종반을 구성, 2개월령 미만 송아지를 제외한 전체 두수에 구제역 예방백신을 접종한다. 가족전염병 임상증상을 예방하고 축사 방역요령에 대해 안내하며 구제역 예방접종 확인서 의무 휴대, 구제역 의심축 폐사축 신고 및 구제역 방역수칙 등도 홍보한다. 예방접종 미이행 농가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가족거래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정병호 기자 jusbh@

전남소방, 4월 '산악사고' 급증...예방 안전대책 추진

전남소방본부는 15일 “연중 산악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봄철을 맞아 다음달 31일까지 ‘산악사고 예방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악사고 예방대책은 ‘코로나19’로 인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고려해 산악구급함과 산악위험표지판 등 안전시설물 정비, 산악사고 인명구조훈련 등 대면접촉을 최소화한 대책으로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종료되면 주요 등산로에 119구조·구급대를 배치해 등산객의 안전을 도모한 ‘등산목안 전지킴이’도 운영하게 된다. 최근 3년간 전남에서 발생한 산악사고는 총 1210건으로 해마다 4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25%가 봄철인 4-5월에 집중되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h@

조선의 신작 시집

꽃, 향기의 밀서

본시 땅위에 길이 없어 가는 사람에게만 길이 된다. 꽃도 풀이었다가 꽃으로 보는 사람에게만 꽃이 된다.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고 꽃의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서 대화를 나누고 내뿜어야만 꽃의 생애가 보이고 향기의 밀서도 받게 되는 것이다. 빛으로 오롯이 쌓아올린 철학적 성찰이 침묵의 결박을 풀고 물마루를 건너와 이야기하는 물옥잠의 향기로 밀어 귀를 기울인다. 꽃의 속삭임에는 애처로운 누이의 생애와 어머니의 새카맣게 애간장 타는 속울음이 있다. 꽃마다 대지의 조근조근한 숨결을 건너온 계절이 있다.

- 김광희시인

조선의 시인은 꽃의 시인이다. 일찍이 김춘수 시인이 무의미한 사물을 호명해 ‘꽃’으로 상징되는 존재론적 의미를 부여했다면, 조선의 시인은 우리의 인식망에서 멀리 있던 실제 꽃들을 찬찬히 불러들여 고유의 향기를 부여했다. 꽃은 향기로 숨 쉰다. 그래서 꽃은 향기로 실존한다. 그런 의미에서 조선의 시인의 꽃시는 꽃을 읽은 우리 시단의 꽃시이요, 향기 없는 세상의 꽃씨다. 시인의 시집을 읽노라면 마치 시인이 테리고 나온 꽃들과의 나들이에 초대받은 기분이다. 향기 풀풀 나는 초대면에 한껏 취하고 만다.

- 김원수시인

조선의 프로필 | 농민신문신춘문에 당선
김만중문학상
신석정초록문학상
현. 서은 문병란 문학연구소 초빙교수

기독신문에 당선
거제문학상
안정복문학대상 등 수상

조선의 시집 | 『당신 반칙이야』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어쩌면 쓰러린 날은 꽃피는 동안이다』
『돌이라는 새』

시인 조선의